



퓨리나 울트라 초이사료

병아리 7일령 체중이

성공적인 사육성적을 좌우한다!

빠른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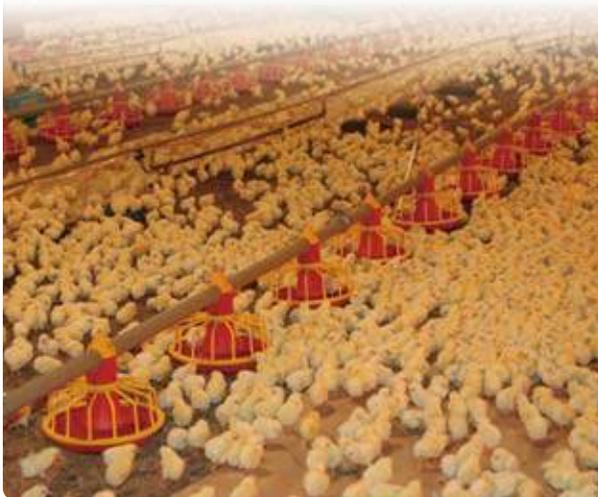
- 병아리 생리에 맞는 최적 영양 균형
- 고농축 영양소 설계
- 사료 섭취량 조기 극대화
- 높은 소화율을 위한 소프트 미니 펠릿

튼튼한 골격 형성

- 초기성장을 위한 필수 아미노산 강화
- 아미노산/에너지의 균형
- 퓨리나 고유 특수 첨가제 첨가

균일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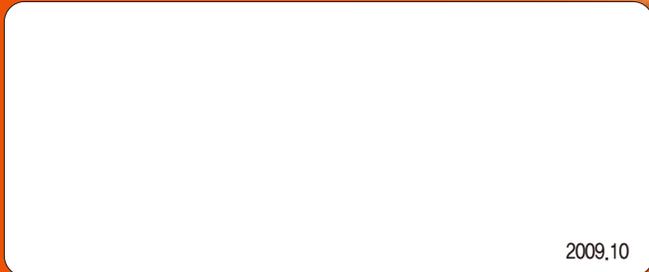
- 고른 영양 섭취
- 사료 효율 개선
- 엄선된 원료 사용



퓨리나 울트라 초이프로그램



Purina



2009.10



Purina



병아리의 유전능력 극대화

육종기술의 발달로 병아리의 유전능력이 발전을 거듭해 오며 따라서 병아리 입추 후 신속한 초이사료 섭취가 성적향상에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갓 부화한 병아리 특성

- 미성숙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성장 속도는 빠르다.
- 미성숙한 면역기관에서 성장하는 단계이다.
- 소화기관과 장 표면적이 증가하며 높은 성장율을 보인다.
- 잔류 난황에서 공급받던 모체이행항체와 영양이 48시간 안에 소진된다.
- 글리코겐이 소진되고 에너지원이 난황지방에서 사료의 탄수화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신속하게 초이사료를 급여해야한다.

입추 후 사양관리

- 즉시 병아리가 충분히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 입추 8시간 후 모이주머니에 80%의 사료가 만져져야 하며, 24시간 후에는 95% 이상 차 있어야 한다.
- 1주간 23시간 점등해 준다.

7일령 동안 주요 관리 목표

- 사료 섭취량을 조기 극대화한다.
- 건강한 병아리 육성한다.
- 신속한 증체가 가장 중요하다.
- 균일도 개선 시킨다.
- 조기 성장을 위하여 소화율이 높은 소프트 미니 펠렛 사료를 급여한다.



최적 설계된 초이사료

병아리의 유전능력을 극대화시켜 균일하고 신속하게 사육 목표체중에 도달하도록 퓨리나 고유의 특수 첨가제를 첨가하여 설계된 소프트 미니 펠렛 형태의 초이사료이다.



최적화된 영양 공급

- 높은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방의 소화율
- 사료 섭취량 증가를 위하여 식이 전해질 균형 최적화.
- 고농도 비타민, 미네랄 공급으로 면역기능 증진

차별화된 원료 사용

- 병아리의 생리적 특성에 맞추어 정밀한 원료 이용성 평가
- 높은 소화율과 기호성 원료 사용
- 오염원이 없는 위생적인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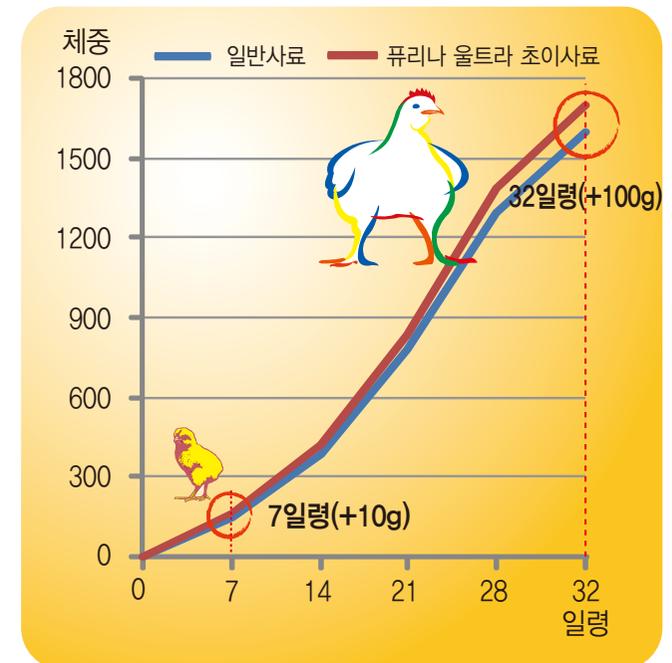
놀라운 추가 증체 효과

7일령에 체중 10g 차이로 32일령에 100g 추가 증체

병아리 사육 목표(육계)

일령	7일령	32일령
사료섭취량	160g	2,770g
추가증체	10g	100g
목표체중	155g	1,700g
사료효율	1.03	1.63

*위 사양 목표는 평균적인 사양환경에서의 예상 성적이며 병아리의 상태, 환경, 질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산란계와 종계 병아리에도 적용 됩니다.